

선진국의 對 개도국 경제협력 정책*

김 인 준**

| <目次> | |
|-----------------------------|-------------------------------|
| I.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의의 | 과 가능성 |
| 1. 신흥공업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 III. 선진국의 대 개도국 경제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
| 2. 보호주의 심화와 무역다변화의 필요성 | 1.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
| 3.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 | 2.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
| 4. 태평양경제권 부상과 이에 대한 대비 | IV. 한국의 대 개도국 경제협력 현황 |
| 5. 북방정책과 경제협력의 필요성 | 1. 정부차원 경제협력 |
| II. 선진국의 대 개도국 경제협력의 유형과 특성 | 2. 한국의 민간차원 경제협력 |
| 1. 정부차원 경제협력의 유형과 특성 | V. 한국의 대 개도국 경제협력 증진방안 |
| 2. 민간차원 경제협력의 유형 | 1.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증진방안 |
| | 2. 대 개도국 직접투자 활성화방안 |

I.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의의

1. 신흥공업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지난 20여년간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개인당 소득이 4,000달러를 상회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3년간의 경제성장은 평균 12%를 상회하여 신흥공업국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한편 한국은 과거에 외채증가에 따라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지난 3년간 계속된 국제수지흑자에 힘입어 외채문제는 더 이상 중요 잇슈가 되지 않게 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제수지균형 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최근 국내 임금의 급격한 상승, 원화의 평가절상, 그리고 대선진국

* 이 연구는 1988년도 개도국 지역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 서울대, 국제경제학

무역마찰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경제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경제에서의 비중 증가에 따라 그 위치에 걸맞는 역할증대를 對開途國 경제협력분야에서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후발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개발원조(ODA)를 점진적으로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은 교역증대와 직접 투자확대를 통한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을 병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2. 보호주의의 심화와 무역다변화의 필요성

국제무역환경은 선진국의 신보호무역주의 및 상호주의의 확대와 블록경제화 경향 등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및 對美 국제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임에 따라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들과의 통상마찰은 더욱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1988년중 대미수출(214억불)은 수출총액(607억불)의 35.2%를 차지하여 1987년의 38.7%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1987년 95억불에 이어 1988년에도 8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무역수지흑자로 인하여 한·미 간 통상마찰은 앞으로 더욱 심화되리라 여겨진다.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1987년의 52억불 적자에 이어 1988년에도 39억불로 적자폭은 줄었으나 아직도 대규모 역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교역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와 구조적인 불균형의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 따라서 점증하는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일본에 대한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교역시장의 다변화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현재 對開途國 무역이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작으므로 민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대개도국 교역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도국은 우리에게 부족한 원자재를 수출하므로 우리 경제와는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교역증대는 양국경제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3.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해외 직접투자의 필요성

제조업의 발달단계를 중심으로 산업군을 분류하면, 사양산업, 성숙산업,

신규유망산업 그리고 미래첨단산업으로 크게 4元化할 수 있다.

한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섬유, 봉제, 신발, 합판 등 사양산업에서는 비교우위를 이미 잊고 있으며, 조선, 철강, 가전제품 등 성숙산업에서의 비교우위도 오래 가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신홍공업국가군에 속하는 우리의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형 컴퓨터, 항공, 중전기, 산업용 전자, 정밀화학, 자동차 등 신규유망산업과 반도체, 대형 컴퓨터, 산업용 로보트, 광통신, 신소재산업, 생명공학 등 미래첨단산업분야로 산업구조를 계속 고도화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선진국들과의 무역마찰은 더욱 가중되리라 여겨진다. 대개도국관계에서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잊은 산업의 이전을 적극 도움으로써 개도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우리의 사양산업도 활로를 찾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최근 경상수지흑자가 지속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임금상승압박과 통화관리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원화 절상 및 국내시장 전면개방압력 등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제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외투자를 통한 경제협력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측에서는 선진국의 보호무역 압력과 고임금에 따른 경쟁력 상실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한편 정부의 입장에서는 통화의 적정관리 및 국제수지흑자의 효율적 운영의 차원에서 해외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4. 태평양경제권 부상과 이에 대한 대비

태평양경제권은 일본, 중국, 아시아 신홍공업국, ASEAN 등의 아주 태평양지역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등 미주태평양지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태평양도서국가들로 구성된다.

태평양지역은 지리적으로 광활할 뿐 아니라 역내 국가간에 인종적, 문화적, 역사적 다양성이 존재하고 경제구조 및 발전단계가 상이하다. 이와 같은 태평양지역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표 1>에서와 같이 亞·太平洋 경제권인 일본, 아시아 신홍공업국가들, 중국 그리고 ASEAN 국가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온 결과 이 지역은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경제의 블럭화 추세에 직면하여 일

〈표 1〉 亞·太平洋圈의 世界 GNP 占有比 추이

| | 1 9 8 0 | | 1 9 8 6 | | 1 9 9 3 | | 2 0 0 0 | |
|---------|---------------|-------------|---------------|-------------|---------------|-------------|---------------|-------------|
| | GNP (억 달러) | 構成比率 (%) |
| 아·태평양권 | 13,585 | 11.4 | 23,545 | 14.2 | 33,900 | 16.1 | 46,200 | 17.5 |
| 일본 | 10,589 | 8.9 | 19,628 | 11.8 | 28,200 | 13.4 | 37,100 | 14.0 |
| 아시아NICs | 1,397 | 1.2 | 2,152 | 1.3 | 3,400 | 1.6 | 5,400 | 2.1 |
| 아세안 | 1,599 | 1.3 | 1,765 | 1.1 | 2,300 | 1.1 | 3,700 | 1.4 |
| 미국 | 27,320 | 23.0 | 42,085 | 25.2 | 50,000 | 23.8 | 61,500 | 23.2 |
| ECC | 27,811 | 23.4 | 30,930 | 18.6 | 39,400 | 18.7 | 46,800 | 17.7 |
| 세계 | 118,917 | 100.0 | 166,703 | 100.0 | 210,200 | 100.0 | 264,900 | 100.0 |

자료 : 日本經濟企劃廳, 200年代의 世界經濟展望

본은 경제통합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亞·太平洋地域에서 자국의 주도 하에 경제공동체를 설립하거나 자유무역권을 설립하려는 논의를 계속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비하여 우리는 ASEAN을 포함한 이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등은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아직 임금도 낮은 수준이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보완관계에 있으며 교역, 직접투자를 통한 경제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

5. 북방정책과 경제협력의 필요성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북방정책의 추진은 경제교류에서 가장 큰 실효를 거두리라고 여겨지므로 이를 위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개방정책과 동시에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가 북방정책을 추진할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산권 진출시에는 여러가지 위험을 안게 되므로 초기단계에서는 정부개발원조를 주축으로 한 경제협력이 바람직하며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은 전적으로 기업의 결정과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선진국의 대 개도국 경제협력의 유형과 특성

경제협력은 크게 정부차원에서 실시되는 정부개발원조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직접투자 중심의 경제협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정부차원 경제협력의 유형과 특성

현재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경제협력의 대종을 이루는 정부개발원조(ODA)를 유형별로 보면, ⑧ 자금협력, ⑨ 기술협력, ⑩ 국제기관을 통한 협력 등이 있다. 자금협력은 무상자금협력과 저리(低利)의 차관대여로 세분된다.

먼저 그 유형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면, 무상원조는 문자 그대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혜국은 경제개발이 미미한 후발개도국이다.

장기저리차관은 수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관련된 프로젝트차관(project loans), 국제수지압박을 덜어주는 것에 도움이 된 상품차관(commodity loans), 의체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는 차관(debt relief) 등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차관을 장기저리로 공급할 경우에도, 필요한 원자재는 차관공여국으로부터 수입하게 한다든지,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법, 노우하우(know-how) 기술도입 등은 차관공여국에 의지하게 하여 저리의 차관공여에 따른 무상원조요소를 상당부분 상쇄시키기도 한다.

선진국의 기술협력형태는 ⑪ 훈련(training), ⑫ 전문가 파견, ⑬ 자원봉사자 파견, ⑭ 투자분석팀 파견(dispatch of survey teams) 등으로 대별된다. 물론 전문가나 자원봉사자의 파견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equipments)와 물자(materials)가 함께 공여되기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기술협력은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는 정부부문에서의 프로젝트차관 공여 혹은 민간부문에서의 직접투자 실시에 앞서, 기술협력을 통해서 프로젝트 가능성 분석(feasibility)을 하고 필요한 기술인력을 훈련, 공급해 주기도 한다.

UN과 같은 국제기관에 대한 증여 역시 정부차원에 있어서의 경제협력의

한 유형이다. 증여된 자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문제를 분석하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된다. 이 경우 개도국의 경제분석과 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증여국을 중심으로 기술협력팀이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증여국은 국제기관이라는 중립적 입장을 떠면서, 관련 개도국 경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종합할 수 있고,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증여액의 상당부분이 투자분석팀의 인건비로 사용되므로 실제로 증여국은 증여액의 상당부분을 회수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많은 경우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 둘째로, 기술지원은 민간부문에서의 경제협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직접투자를 함에 있어 기술인력부족이 장애요인이라면 정부차원의 기술협력으로 이를 제거해 준다. 세째로, 재정지원을 교역과 직접 연관시켜 자국재화의 수출증가에 촉진을 맞춘다. 네째로, 기술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경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필요한 정보수집을 자연스럽게 수행한다. 다섯째로, 기술협력은 독립기관을 지정하여 독립적으로 임무가 수행된다는 인식을 갖게끔 한다. 마지막으로 훈련, 전문가 파견 등 기술협력은 민간부문의 협력을 얻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2. 민간차원 경제협력의 유형과 가능성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은 크게 투자를 통한 협력과 무역을 통한 협력으로 대별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 직접투자, ② 차관대여, ③ 수출신용, ④ 개도국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직접투자와 무역을 연계시켜 선진국, 신흥공업국, 그리고 개도국간의 산업재편성을 꾀하면서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도 있다.

직접투자를 통한 경제협력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들이 상당한 액수의 직접투자를 개도국들에 행하여 이미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한 경제협력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제3세계 간의 직접투자라는 점에서 선진국에 비하여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첫째로, 개도국들의 경우 자국경제가 선진국들에 의해

지배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선발개도국의 투자에 대하여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둘째로, 우리는 최근에 산업화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기술이나 제품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 보다 적절한 형태이며, 이는 개도국들의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시키기에도 유리하다. 셋째로, 소규모시장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경영 및 기술인력에 대한 비용이 선진국의 경영자나 기술자에 대한 비용보다 적으므로 비용구조면에서 낮은 제조간접비용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개도국들이 고용문제와 국제수지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수출지향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분야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의 직접투자에서는 우리도 선진국과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한편 무역을 통한 대 개도국 경제협력은, 우리의 계속되는 국제수지 흑자와 무역자유화 정책에 힘입어 더욱 확대되리라 여겨진다.

Ⅲ. 선진국의 대 개도국 경제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1.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1)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정부개발원조

1986년의 개발원조위원회(DAC) 제국의 정부개발원조(ODA)는 총 366억 7,800만불로써 전년의 294억 2,800만불에 비해서 24.6%가 증가되었다.

국별로는 미국이 95억 6,400만불, 일본이 56억 3,400만불, 불란서가 51억 500만불, 서독이 38억 3,200만불, 이탈리아가 24억 400만불, 그리고 영국의 17억 5,000만불 순이다.

전년에 비해서 이탈리아가 118.9%로 배 이상 신장되었고 네덜란드가 53.2%, 일본이 48.4%, 서독이 30.2%, 스웨덴이 29.8%, 불란서가 27.8%, 그리고 영국이 14.4%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가는 대부분 이들 국가들의 화폐가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평가절상하였기 때문이며, 실질적 증가율은 1.5%에 지나지 않아, 1984년의 10.7%, 1987년의 3.7%에 비하여 증가세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1986년 ODA의 對 GNP 비율을 보면,

〈표 2〉 1986年 DAC 加盟國의 政府開發援助實績比較

| 對GNP 比順位 | 國 名 | 政府開發援助總額 (百萬 달라) | 對 GNP 比率 (%) | 綜合그란트· 엘리먼트(%) |
|-------------|-----------|---------------------|-----------------|-------------------|
| 1 | 노 르 웨 이 | 798 | 1.20 | 99.4 |
| 2 | 네 델 란 드 | 1,740 | 1.01 | 97.6 |
| 3 | 덴 마 크 | 695 | 0.89 | 97.4 |
| 4 | 스 웨 텐 | 1,090 | 0.85 | 99.5 |
| 5 | 프 랑 스 | 5,105 | 0.72 | 89.1 |
| 6 | 벨 기 에 | 549 | 0.49 | 97.6 |
| 7 | 캐 나 다 | 1,695 | 0.48 | 99.9 |
| 8 | 오스트레일리아 | 752 | 0.47 | 100.0 |
| 9 | 핀 란 드 | 313 | 0.45 | 98.4 |
| 10 | 서 독 | 3,832 | 0.43 | 88.9 |
| 11 | 이 탈 리 아 | 2,403 | 0.40 | 96.0 |
| 12 | 영 국 | 1,750 | 0.32 | 100.0 |
| 13 | 스 워 스 | 422 | 0.30 | 99.2 |
| 14 | 뉴 질 랜 드 | 75 | 0.30 | 100.0 |
| 15 | 일 본 | 5,634 | 0.29 | 81.7 |
| 16 | 아 일 랜 드 | 62 | 0.28 | 100.0 |
| 17 | 미 국 | 9,564 | 0.23 | 96.8 |
| 18 | 오 스 트 리 아 | 198 | 0.21 | 91.8 |
| DAC | 計 | 36,678 | 0.35 | 93.2 |

資料 : DAC, "Development Co-operation," 日本 通商產業省.

0.35%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1980년 UN 총회에서 책택된 對 GNP 0.7%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며 〈표 2〉에서 보듯이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불란서 5개국만이 이를 초과하고 있다.

1986년 DAC 회원국의 ODA 형태별 구성을 보면 2국간 ODA가 262억 2,800만불이며 이중 증여가 210억 6,100만불이고 대부가 51억 6,700만불이다. 국제기관을 통한 출자 및 경제협력은 104억 5,000만불이다.

지역별 구성을 보면 二國間 ODA의 경우, 아프리카 32.3%, 중동 19.4%, 중남미 15.0%, 남아시아 14.2% 그리고 기타 아시아 및 대양주가 17.2%이다.

1976년과 1986년의 두 시점을 비교해 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23.4%에서 32.3%로, 중동지역이 17.9%에서 19.4%로 증가한 반면 남아시아지역은 17.2%에서 14.2%로 감소하여, 지역별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주원인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사정 악화, 남아시아의 경제사정 호전, 중동지역의 원조국 특유의 이해관계 반영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원조조건을 보면 그란트·엘리먼트(grant element)가 1985년의 91.6%에서 1986년에는 93.2%로 약간 호전되었다.

(2) 주요 선진국의 정부개발원조 동향

먼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첫째로 원조를 함에 있어 안정보장적 측면을 중시한다. 경제협력을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 수단으로 보아 미국의 국익에 합당한 二國間 원조를 중시하며, 따라서 국제기관을 통한 다국간 원조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두번째로 시장메커니즘을 중시한다. 따라서 경제협력을 함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982년에는 국제개발청(US-AID)에 민간기업국(Bureau for Private Enterprise)을 신설하여 개발도상국 민간부문의 투자촉진, 수출진흥,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에 따라 원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DAC 전체의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5년의 32%에서 1986년에는 26%로 줄어들었다.

불란서는 불란서語, 불란서 문화의 보급 등 과거 식민지제국에 대한 종주국으로서의 책임수행을 전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한편 미테링 정부는 후발개도국의 원조를 중시하여 이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1986년의 실적은 전년에 비해 27.8% 증가하였으나, 물가와 환율의 변동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서독은 동·서 긴장완화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개발원조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이는 서독이 동·서관계의 영향을 어느 국가보다도 적극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서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사회적 불안정이 동·서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믿어, 1986년 3월에 채택된 「원조에 관한 기본지침」에서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구제, 식량원조, 지방개발, 에너지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다. 1986년의 달러표시 ODA는 전년에 비해 30.2%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자국통화의 절상에 기인한 것이며 마르크화로는 오히려 3.9% 감소되었다.

이탈리아는 최근에 ODA를 가장 확대한 국가이다. 1987년 2월에 원조관리법을 제정하여 원조실시체제를 정비하였고 긴급원조프로그램도 통상의 원조

〈표 3〉 諸外國의 技術協力實績(1986年, ()안은 1985年)

| 國 項 目 | 技術協力實績 (A) 百萬달리 | | 政府開發援助 (B) 百萬달리 | A/B (%) |
|----------|--------------------|-------------|--------------------|------------|
| | 1986年 | ()안은 1985年 | | |
| 프 랑 스 | 1,975(1,521) | | 5,103(3,995) | 38.7(38.1) |
| 미 국 | 1,511(1,464) | | 9,564(9,403) | 15.8(15.6) |
| 서 독 | 1,230(876) | | 3,832(2,942) | 32.1(29.8) |
| 일 본 | 599(422) | | 5,634(3,797) | 10.6(11.1) |
| 영 국 | 405(333) | | 1,750(1,531) | 23.1(21.8) |
| 네덜란드 | 386(266) | | 1,740(1,135) | 22.2(23.4) |
| D A C 計 | 7,413(6,035) | | 36,678(29,429) | 20.2(20.5) |

資料 : DAC, "Development Co-operation," 日本 通商產業省.

체제 속에 포함시켰다.

1986년에 대폭 증액된 원조의 대부분은 국제개발협회(IDA),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등에 대한 출자와 이국간 원조의 대폭 확대에 사용되었다. 한편 그 중 6할가량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원조에 사용되었다.

(3) 일본의 정부개발원조동향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는 1961년 해외협력기금의 설치와 함께 본격화 되었다. 일본의 ODA 실적은 〈표 3〉에서 보듯이 1986년에 56억 3,400만불 1987년에는 74억 5,400만불을 기록하였고 대 GNP 비율은 1985년 이래 계속 0.29%를 유지하고 있다. 1986년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ODA의 절대액은 미국에 이어 2위이나 對 GNP 비율은 DAC 가맹 18개국중 15위이며 그란트·엘리먼트는 81.7%, 중여비율은 60.7%로 1985년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었으나, DAC 회원국의 평균 그란트·엘리먼트 93.2%, 평균증여율 84.3%를 하회하여, 원조의 질·양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86년 일본 ODA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二國間 ODA의 총액은 38억 4,600만불이며 국제기관을 통한 출자는 17억 8,800만불이다. 二國間 ODA중 증여가 17억 300만불, 그리고 대부가 21억 4,300만불을 차지한다.

한편, 일본 二國間 ODA의 지역별 배분을 보면, 아시아지역 비중이 다소 줄기는 하였으나 1986년에도 64.8%를 차지하여 대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에 대한 1986년의 ODA는 15.4%로 전년과 대동소이하며 외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ODA는 8.2%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다소 줄었다.

〈표 4〉 日本의 經濟協力實績

(단위 : 백만달러)

| 年度 | 總 計 | 國民總生產 對比(%) | ODA | 國民總生產 對比(%) | 其 他 政府資金 | 民間資金 | 非營利團 體에의 한 贈 |
|------|--------|----------------|-------|----------------|----------------|--------|--------------------|
| 1960 | 246 | — | 105 | 0.24 | — | — | — |
| 1965 | 486 | 0.55 | 244 | 0.27 | — | 242 | — |
| 1970 | 1,824 | 0.92 | 458 | 0.23 | 694 | 669 | 3 |
| 1975 | 2,890 | 0.58 | 1,148 | 0.23 | 1,370 | 363 | 10 |
| 1980 | 6,766 | 0.65 | 3,304 | 0.32 | 1,478 | 1,958 | 26 |
| 1985 | 11,619 | 0.87 | 3,797 | 0.29 | 302 | 8,022 | 101 |
| 1986 | 14,808 | 0.75 | 5,634 | 0.29 | △ 724 | 9,817 | 82 |
| 1987 | 20,462 | 0.80 | 7,454 | 0.29 | △ 1,808 | 14,723 | 92 |

자료 : 日本通產產業省, 經濟協力의 現況과 問題點, 1980 및 1987.

1986년 일분의 이국간 ODA의 분야별 내역을 보면, 통신, 운수, 에너지 등 공공사업분야 36.5%, 농림, 어업 11.5%, 광공업, 건설 11.1%, 교육 8.4% 그리고 보건 3.3% 등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기술협력현황을 살펴 보면, 1986년 일본의 기술협력 실적은 5억9,900만불로 ODA에서 10.6%를 차지하고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이를 다른 DAC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면, 불란서, 독일, 영국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며, DAC 평균 20.2%에도 훨씬 미달하고 있어 일본은 기술협력에 있어 비교적 인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기술협력의 유형을 보면 ①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연수생, 유학생 수용 ② 발전도상국에 전문가 파견 ③ 프로젝트 기술협력 ④ 개발조사협력 ⑤ 연구협력 ⑥ 무역, 투자촉진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일본정부는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금후의 과제로 ① 기술협력의 확대를 위한 체제·인재의 정비 ② 외화획득형 산업의 육성과 투자촉진을 위한 협력, 첨단기술분야의 기술협력 등 새로운 수요의 다양화에 대한 적극 대응 ③ 우량 프로젝트의 발굴, 형성 ④ 민간기술협력기관의 활용과 적극적 지원 ⑤ 개도국들의 경제개발계획 단계부터의 참여와 기동성 확보 등을 들고 있다.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중 국제기관을 통한 원조의 비율은 1986년에 31.7%로 같은 해 DAC 회원국들의 평균인 28.5%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기관을 통한 1986년 원조의 총액은 17억8,800만불인데, 대상기관

별 내용을 보면 국제연합 관련기관에 대한 증여가 3억 4,900만불, 그리고 국제개발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기부가 14억 1,300만불이다. 국제기관을 통한 경제협력은 수혜국이 특정국의 영향을 덜 받고 중립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수혜국의 정책개선의 경우에도 이국간 원조의 경우보다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국제기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일본은 최근 새로이 형성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고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조공여 방식에 대한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당국의 경제정책 수립 및 시행에 조언을 하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얻어진 원조대상사업 또는 사회부문에의 원조를 적극 제공한다. 둘째는 民官의 공동출자로 “개도국 경제활성화기구”를 설립하여 개도국의 대규모 프로젝트 입안단계에서부터 자금은 물론 기술과 인력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이 자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공업화와 경제원조를 접목시킨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확대하면 원조, 직접투자 그리고 무역을 통해 일본, 신홍공업국 그리고 개도국간에 산업을 재편성하여 새로운 분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이다.

2.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1) 투자를 통한 경제협력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은 직접투자를 통한 협력 그리고 교역을 통한 협력으로 대별된다. 그런데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은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접투자를 통한 경제협력의 논의에 국한시키고자 한다.

선진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1980~1982년의 세계경기의 침체에 따라 신장율이 저하되었으나 1983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1976~1986년 사이 연평균성장률은 13.9%로 명목 GNP 증가율 7.9%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 직접투자 흐름(flow)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미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다른 선진국의 비중이 증가한 사실이다. IMF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비중은 1971~1979년의 48.6%에서 1980~1985년에는 19.2%로 감소하였다. 최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급격히 상승하여, 1984년에 100억불을 기록한 이래, 1987년에는 300억불을 초과하고 있

다. 두번째 특징은 직접투자가 선진국, 그 중에서도 미국으로 집중되고 개도국의 비중이 감소한 사실이다. 즉, 1970년대를 통하여 해외직접투자의 30% 가량을 점하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가 1986년에는 13%까지 저하된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 직접투자의 지역별 추이를 보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비교적 유지, 증가되고 있으나,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전체 투자액은 오히려 감소된 편이다. 세번째 특징은,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상업, 금융, 보험,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분야에 대한 직접투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해외직접투자국으로 등장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1980년대 투자흐름의 배경에는 국제경제환경,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 일본, 유럽 다국적기업들의 ④ 더 높은 성장분야와 지역으로의 진출 ⑤ 좀 더 효율적 생산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생산거점의 확보와 기업내 분업체계의 구축 ⑥ 선진국의 보호주의를 회피하여 시장을 확보하려는 노력 ⑦ 제품의 국제화, 세계적인 시장 네트워크의 확립 등 국제기업전략 등이 있다.

한편 1985년 9월의 프라자미팅 이후 달러안정화의 진전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한 단계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산업의 재편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2) 주요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먼저 미국의 경우를 살펴 보자.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잔고는 1980년의 2,154억불에서 1986년 말에는 2,599억불로 20.7%가 증가하였다. 지역별 구조를 보면, 동·기간동안 일본과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투자잔고가 각각 80.6%, 90.8% 증가한 반면, 유럽, 캐나다로 향한 투자증가가 저조하고 중남미에 대한 투자잔고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1986년의 해외직접투자(net capital flow)는 280억불로 전년대비 62.4%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네덜란드, 스위스, 서독, 일본 등의 선진국으로의 투자가 53.5% 증가한 205억불에 이르렀으며 아시아, 중남미 등 발전도상국으로 향한 직접투자가 116.7% 증가한 82억불에 이르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에서 화학, 수송기, 석유업, 그리고 보험, 금융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5년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11%

45% 증가한 88억 2,800만파운드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최대의 투자시장인 미국으로의 투자는 전년대비 15% 증가에 그쳤다. 1985년 해외직접투자의 큰 특징은 EC 제국이 미국에 이어 투자시장으로 등장한 것인데 특히 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1982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1986년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114억 파운드로 직접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분야에서 해외진출이 급속히 신장된 이유는 기업들이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의 성장권에서 확고한 거점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정부는 대내, 대외 쌍방의 투자를 촉진시켜 영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쌍방투자교류에 적극적이다.

서독의 1986년도 해외직접투자(net flow)는 전년의 136억 마르크에 미치지는 못하나 112억 마르크로 사상 두번째 액수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선진국으로의 투자가 94%로 집중되었으며 그중 미국, EC 제국이 각각 39.5%, 39.3%를 점유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화학분야(1986년 점유율 14%)에 대한 투자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기·전자(同 13.5%) 그리고 자동차 산업(同 18.9%)에 대한 투자가 각각 71.6%, 58.2% 증가하였다. 1984, 1985년의 수출붐을 타고 기업체질을 강화한 서독기업은, 프라자미팅 이후의 마르크의 대달러 가치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국제화전략을 강력히 시도하고 있다.

불란서의 해외직접투자는 1985년 260억 프랑에서 1986년에는 494억 프랑으로 90% 증가하였다. 최근 공산품 수출의 부진을 의식한 불란서는 선진국 시장의 개척, 불란서 기업의 현지 판매, 거점 강화를 목표로 1986년부터 해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제의 완화 등 제도개정을 통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그 결과 선진국을 향한 직접투자 점유율은 1985년의 72%에서 1986년에 88%로 상승하였으며, EC와 미국을 향한 투자가 각각 3배와 2배로 급증하였다.

(3)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1)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전개

戰後 日本의 해외직접투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시 중단되었다가 1951년부터 재개되어 1970년대초에 이르는 高度成長期를 통해 꾸준히 증가하여 1972년과 1973년에 제 1 차 活成期를 맞았다. 그러나 1973년 말 Oil Shock로 일시 경체되었다가 1978년부터 해외투자 본격적 국제화시대에 접어들었고

〈표 5〉 日本 海外直接投資의 展開過程

〈日本の 海外直接投資의 時期區分〉(日本通産省 區分)

第1期(1951~1962년) : 年間投資額 1억 불미만의 基盤造成期

第2期(1963~1967년) : " 1~2억 불의 基盤擴長期

第3期(1968~1971년) : " 5~9억 불의 挑躍準備期

第4期(1972~1973년) : " 20~30억 불의 活盛期

第5期(1974~1977년) : 石油危機로 인한 停滯期

第6期(1978~1983년) : 年間投資額 40~80억 불의 本格的 國際化期

第7期(1984~현 재) : 年間投資額 100억 불 이상의 國際化 高度期

〈표 5〉에서 보듯이 1984년부터 현재까지 해외투자구조가 국제화고도기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초기단계인 1960년대에는 자원확보를 위한 자원개발형 투자가 중심이었고 따라서 지역별 투자에 있어서 동남아지역의 개도국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당시 구미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상사와 은행에 의한 서비스업과 무역관련 투자가 중심이 되었다.

1970년대에는 일본 국내에서의 임금상승 및 노동력부족 등으로 기업비용측면에서 해외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제조업투자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이 시기부터 활발해졌으며 한편 미·일간 무역마찰회피를 위한 제조업부문의 대외진출이 크게 강화되었다.

2) 1980년대 일본의 해외투자 특징

1980년대에 들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보다 본격화되고 종전의 해외직접투자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경상수지의 대폭적인 흑자를 배경으로 해외직접투자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1984년에 100억 불을 최초로 달성한 뒤 1987년에는 334억 불을 초과하고 있다. 둘째로, 투자대상지역이 종래의 동남아시아의 개도국에서 구미 선진국 중심으로 바뀌었다. 일례로 1987년도 일본의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체의 46%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47%의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세째로,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부문 투자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제조업부문에서는 전기, 기계, 수송기 등 가공조립형 및 기술집약형 부문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987년까지 일본의 해외투자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율을 보면 25.8%와 74.2%로 비제조업의

비중이 월등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네째로, 엔고의 진전과 국제분업의 확대이다. 특히 1985년 프라자미팅 이래 엔고에 대응한 기업의 대응전략 방안 중 해외투자의 활용은 주목할만 하다. 이같은 해외투자의 흐름은 크게 나누어 엔고에 따른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아시아 NICs나 ASEAN 등에 생산거점을 이동하는 움직임과 무역불균형에 따른 무역마찰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지 입지형식의 구미 선진국 진출로 구분된다. 다섯째로, 다시 활기를 띠는 중소기업투자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이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상으로는 10~20%에 불과하나 건수로는 40% 정도를 차지한다. 여섯번째로, 다양화되는 일본산업의 해외진출 수단을 들 수 있다. 종래에는 공장을 신설해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존기업의 합병·매수(M & A)에 의한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마지막 특징으로 엔고에 의해 가속화되는 일본기업의 범세계화(global) 전략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 구미의 다국적기업수준에 비해 일본기업의 범세계화는 뒤지지만 프라자미팅 이래 엔고와 국제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계기로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구조를 구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지역별로 볼 때 대개도국 투자비율에 있어 일본의 투자비율은 구미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다. 일본의 대개도국 직접투자는 50%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23.3%, 영국은 18.4%, 서독은 12.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투자비교에서는 일본이 제조업투자의 비중이 전체의 25.8%를 차지하는데 반해 서독은 59.0%(1985년 말), 미국은 41.3%(1986년 말), 영국이 28.5%(1984년 말)를 차지하고 있어 모두 일본보다 그 비중이 높다. 이처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비중이 낮고 비제조업의 비중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IV. 한국의 대 개도국 경제협력

1. 정부차원 경제협력

(1) 정부개발원조의 현황

〈표 6〉 주요협력 형태별 대개도국 경제협력 총괄

(단위 : 백만 US \$)

| 구 분 | 1987 | 1988 | 1987/1988 증가율(%) |
|----------------------|-------|-------|---------------------|
| I. 정부개발원조(ODA) | 73.18 | 55.39 | -24.1 |
| -무상원조 | 9.10 | 11.44 | 25.7 |
| -기술협력 | 8.38 | 8.85 | 5.6 |
| • 국제개발 연관사업 (IDEP) | 0.35 | 0.39 | 11.4 |
| • 연수생 초청 | 2.34 | 2.96 | — |
| • 전문가 파견 | 2.60 | 2.69 | — |
| • 개발조사 협력사업 | 0.90 | 1.15 | 27.8 |
| • 프로젝트형 기술협력 | 1.98 | 1.57 | -20.7 |
| • 기타 ¹⁾ | 0.21 | 0.09 | -57.1 |
| -이국간 유상자금 협력(경제협력차관) | — | — | — |
| -다자간 협력 | 55.7 | 35.1 | -37.0 |
| • 국제기구 출자금 | 49.9 | 28.4 | -47.1 |
| • 국제기구 분담금 | 5.8 | 6.7 | 15.5 |
| II. 기타공적자금(OOF) | 346.5 | 419.9 | 21.2 |
| -수출신용 | 333.1 | 403.9 | 21.3 |
| -해외투자 | 13.4 | 16.0 | 19.4 |
| ODA/GNP(%) | 0.06 | 0.035 | — |
| GNP(억 US \$) | 1,186 | 1,561 | 31.6 |

자료 : 경제기획원

주 : 1)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

참고 : 1987년 평균 1 US \$ = 822.40원

1988년 평균 1 US \$ = 731.50원

한국의 정부개발원조 규모는 〈표 6〉에서 보듯이 1987년에 7,318만불, 1988년에 5,539만불로 GNP 대비 각각 0.06%와 0.035%이다. 이는 1985, 1986년의 GNP 대비 0.1% 수준에서 오히려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정부개발원조의 내용을 살펴 보면, 무상원조는 1987년과 1988년에, 각각 910만불과 1,144만불로써 정부개발원조에서 각각 12%와 20%를 차지한다. 1988년의 무상원조는 81개국 3개 국제기구에 대해 제공되었으며, 주요제공기자재를 보면 차량 및 부품 42%, 농기계 16%, 전자·전기제품 16%, 의류 10%, 그리고 의약품 9% 등이다.

기술협력은 1987년과 1988년에 각각 838만불과 885만불로써 정부개발원조에서 각각 11%와 16%를 차지한다. 1988년의 기술협력의 유형을 보면, 국제개발 연관사업, 훈련생 초청,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 협력사업, 프로젝트

형 기술협력 그리고 공동연구개발 등이다.

현재 한국 정부개발원조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자간 협력으로 1987년에 5,570만불, 1988년에 3,510만불로써 정부개발원조에서의 절유율은 각각 76%와 63%인데 다자간 협력은 크게 국제기구 출자금과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나눌 수 있다. 1987년과 1988년에 걸쳐 한국정부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그룹, 아시아개발은행그룹,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등에 출자하였으며 GATT, ESCAP 등 국제경제기구와 UN 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등에 대한 분담금을 지급하였다.

경제협력차관을 중심으로 한 二國間 유상자금협력은 1987년 6월의 해외협력기금의 설립으로 앞으로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나 1988년까지 그 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다.

한국의 정부개발원조의 특징을 살펴 보면 먼저 그 규모가 작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개발원조의 대 GNP 비율이 0.35%인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 0.1%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다자간 협력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1988년 말까지 이국간 유상자금협력이 전무한 사실이다.

정부개발원조이외의 정부차원에서의 경제협력으로 기타 공적자금협력(Other Official Flow: OOF)이 있다. 여기에는 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과 해외투자자금 등이 있는데 원조의 성격은 그리 많지 않다. 기타 공적자금(OOF)의 규모는 1987년에 3억4,650만불, 1988년에 4억1,990만불인데 연불금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해외협력기금의 현황

해외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1987년 6월에 설치되어 수출입은행관리하에 정부의 경제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현재 기금의 조성 현황을 보면, 정부가 출연한 1987년의 200억원 1988년의 300억원으로 합계 500억원이다.

정부는 1989년도 기금 총 조성액을 1,3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1989년도 예상 GNP의 0.12%에 해당한다. 동년도 기금의 사용계획은 개발사업 차관에 550억원, 기자재 차관에 600억원, 물자차관에 80억원, 사업준비 차관에 20억원, 그리고 해외투융자자금대출에 50억원으로 각각 배분되어

있다.

협력기금의 협행 차관공여조건은 금리 연 4~5%, 상환기관 20년으로 선진국 원조기관의 지원조건(연 0~4%, 20~50년)에 비해 크게 불리하다.

1987, 1988년에 걸친 지원요청사업 현황을 보면, 20개국, 37건, 5억5백만불이다. 이중에서 인도네시아의 도로건설사업과 나이제리아의 철도현대화사업에 대해 1987년 말에 2,300만불을 지원하기로 양국정부간에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1988년 말 현재 자금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1988년 중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된 사업으로는 폐루의 어선현대화사업(지원요청액 : 9.8백만달러)이 있다. 그런데 1989년에는 1987~1988년에 걸쳐 정부의 지원방침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 자금지출이 개시될 예정이다.

2. 한국의 민간차원 경제협력

(1) 한국의 해외투자 현황

최근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정착과 무역마찰의 심화, 원화절상 및 고임금 추세, 그리고 北方經濟政策의 추구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표 7>에서 보듯이 1988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殘存投資는 전수로 612건, 금액으로 1,108백만불로 GNP의 1%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중소기업의 투자는 138건, 31백만불로 전체 투자의 2.8%에 불과하다. <표 8>에서 보듯이 업종별 투자현황을 보면 광업, 제조업, 무역업이 각각 40.6%, 31.6%,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산업은 모두 5% 이하이다.

한편 <표 9>는 지역별 투자현황을 보여 주는데, 북미가 230건에 461백만불, 동남아가 190건에 278백만불로, 금액기준으로 각각 41.6%와 25.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북미지역에 투자가 급신장한 이유는 자동차, 전자 및 반도체업체들이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 회피를 위해 현지 생산법인 설립을 증가시키고 첨단기술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R & D 투자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동남아의 경우 아직도 광업 및 임업의 투자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규모가 연간 일억불을 처음 초과한 것은 1982년이다. 그러나 1984년에는 57백만불로 투자가 다소 저조했으나 그후 꾸준히

〈표 7〉 우리나라의 年度別 海外投資 推移

(單位 : 美貨千弗)

| | 年 中 投 資 | | | 年度未投資 |
|-----------|--------------|---------------|-------------|---------------------|
| | 總投資(件數) | 清算等(件數) | 純投資(件數) | 投 資 殘 額 (件 數) |
| 1968~1972 | 19,429(32) | 1,298(—) | 18,131(31) | 18,131(32) |
| 1973 | 3,907(11) | 190(1) | 3,717(10) | 21,848(42) |
| 1974 | 18,149(19) | 104(2) | 18,045(17) | 39,893(59) |
| 1975 | 14,171(20) | 4,470(9) | 9,701(11) | 49,594(70) |
| 1976 | 8,220(46) | 1,277(16) | 6,943(30) | 56,537(100) |
| 1977 | 17,795(53) | 5,464(7) | 12,331(46) | 68,868(146) |
| 1978 | 43,418(86) | 4,657(12) | 38,761(74) | 107,629(220) |
| 1979 | 22,772(52) | 3,952(3) | 18,820(49) | 126,449(269) |
| 1980 | 21,095(44) | 5,639(26) | 15,456(18) | 141,905(287) |
| 1981 | 40,077(45) | 8,380(11) | 31,697(34) | 173,602(321) |
| 1982 | 129,375(50) | 13,413(19) | 15,962(31) | 289,564(352) |
| 1983 | 113,163(60) | 16,344(11) | 96,819(49) | 386,383(401) |
| 1984 | 56,974(46) | (—) 1,339(15) | 58,313(31) | 446,696(432) |
| 1985 | 117,822(40) | 86,330(29) | 31,492(11) | 476,188(443) |
| 1986 | 171,999(50) | 14,846(18) | 157,153(32) | 633,341(475) |
| 1987 | 397,235(91) | 64,520(32) | 332,715(59) | 966,056(534) |
| 1988. 1~9 | 150,481(113) | 8,268(26) | 142,213(87) | 1,108,269(612) |
| 1988. 10 | 13,556(15) | 898(2) | 12,658(13) | 1,120,927(634) |

註 : 1) 件數는 現地法人單位 基準으로서 新設 또는 撤收만 包含

2) 純投資 = 總投資 - 清算等 (清算分 + 內容變更許可에 依한 減資 + 貸付金償還)

3) 投資殘額은 該當期末까지의 純投資累計임.

資料 : 財務部 國際金融局 海外投資課

증가, 1987년에는 397백만불에 이르고 있다. 1980년 이후의 잔존투자를 기준으로 전 당 평균투자금액 추이를 보면, 1980년에 0.5백만불이던 것이 1987년에는 1.8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한편 1987년의 년간 평균투자액은 4.4백만불로 그 규모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2) 한국의 해외투자 특징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토대로 해외투자의 특징을 살펴 보면 먼저 地域別・業種別 偏重現象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업종별 투자현황을 보면, 1987년 말 현재, 제조업과 비제조업 분야가 각각 25.8%와 74.2%를 차지하고 있어 해외투자가 다양화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투자중 금융·보험투자가 32%, 부동산업 투자가 16.3%, 서비스업이 8.3%, 상업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광업과 제조업이

〈표 8〉 우리나라 海外投資의 業種別 現況

(單位: 千弗)

| | 計 | 礦業 | 林業 | 水產業 | 製造業 | 建設業 | 運輸業 | 貿易業 | 不動產 | 其 他 | |
|-----------|-----|-----------------------------------|------------------------------|----------------------------|------------------------------|--------------------------------|-----------------------------|-----------------------------|---------------------------------|-----------------------------|------------------------------|
| 1968~1983 | 件 數 | 518(177) 451,571 (65,183) | 10(-) 65,261 (13,013) | 12(1) 10,830 (1,535) | 44(14) 69,354 (10,362) | 56(6) 43,363 (10,364) | 57(16) 3,798 (1,052) | 23(3) 59,749 (11,671) | 269(61) 21,725 (1,618) | 12(3) 21,725 (13,046) | 35(13) 25,934 |
| 1984 | 件 數 | 46(15) 56,974 (△1,339) | 1 22,185 (2,527) | 6,419 (793) | (3) — | 13,428 (137) | 7(2) 3,172 (1,305) | 2(2) △84 (130) | 17(7) 8,260 (597) | — (△6,876) | |
| 1985 | 件 數 | 40(29) 117,822 (86,330) | 2 70,835 (66,849) | 3,211 (5,207) | 2(4) 2,089 (611) | 20,105 (1,810) | 2(3) 2,898 (137) | 1(2) 1(1) (1,810) | 17(15) 12,138 (2,907) | 1 2,785 (2,907) | 4(3) (8,809) |
| 1986 | 件 數 | 50(18) 171,999 (14,846) | — 73,678 (2,094) | (1) 469 (5,932) | 3(2) 3,831 (75) | 20(2) 70,104 (1,388) | 1(1) 1,910 (2,976) | 1(1) 74 (100) | 18(11) 14,343 (2,271) | 2 2,897 (2,271) | 5 4,693 |
| 1987 | 件 數 | 91(32) 397,235 (64,520) | 3(2) 202,153 (49,477) | (1) 247 (1,050) | 4(2) 2,329 (73) | 32(8) 157,746 (3,861) | 4(2) 2,758 (6,342) | 3(3) 1,010 (758) | 36(12) 20,273 (2,271) | 1 800 (2,271) | 8(2) 9,919 (577) |
| 1988. 1~9 | 件 數 | 113(26) 150,481 (8,268) | 2(1) 53,880 (1,040) | 1(—) 450 (2,760) | 1(3) 13,338 (210) | 44(7) 37,042 (1,664) | 5(2) 2,286 (255) | 5(—) 416 (—) | 45(10) 31,759 (1,494) | 3(—) 7,473 (—) | 7(3) 3,837 (845) |
| 10 | 金 額 | 15(2) 13,566 (898) | —(—) 1,541 (81) | —(—) — (—) | 1(1) 138 (30) | 3(—) 5,832 (—) | 2(—) 2,770 (—) | —(—) — (—) | 7(1) 2,085 (787) | —(—) — (—) | 2(—) 1,190 (—) |
| 累 計 | 件 數 | 873,239 1,359,638 (238,711) | 18(3) 575,829 (23,548) | 13(3) 76,057 (7,178) | 55(29) 32,628 (18,033) | 176(25) 373,611 (23,052) | 78(26) 59,157 (2,177) | 35(11) 5,272 (2,177) | 409(117) 148,607 (22,109) | 19(3) 35,680 (1,608) | 70(22) 52,797 (16,401) |
| 殘 存 投 資 | 件 數 | 634 1,120,927 100.0 | 15 451,234 40.3 | 10 52,509 2.3 | 26 355,578 31.7 | 151 36,105 3.2 | 52 3,095 0.3 | 24 126,498 11.3 | 292 34,062 3.2 | 16 36,396 3.0 | |

資料 : 財務部 國際金融局 海外投資課

<표 9> 우리나라 해외 投資의 地域別 現況

(單位 : 千億)

| | | 計 | 東南亞 | 中東 | 北美 | 中南美 | 유럽 | 아프리카 | 大洋洲 |
|-----------|-----|------------------------|---------------------|---------------------|---------------------|---------------------|-------------------|--------------------|---------------------|
| 1968~1983 | 件數 | 518(117) | 155(31) | 46(11) | 173(38) | 35(9) | 61(17) | 29(9) | 19(2) |
| | 金額 | 451,571 (65,188) | 118,399 (27,199) | 34,155 (6,382) | 135,922 (15,885) | 53,889 (3,305) | 11,774 (2,475) | 27,380 (9,589) | 70,052 (353) |
| 1984 | 件數 | 46(15) | 7(4) | 4(1) | 25(4) | 3 | 1(2) | 4(3) | 2(1) |
| | 金額 | 56,974 (△1,329) | 10,821 (426) | 5,383 (1,205) | 17,826 (△6,795) | 8,113 (2,537) | 1,068 (73) | 970 (35) | 12,793 (1,190) |
| 1985 | 件數 | 40(29) | 16(5) | 1(3) | 13(14) | 3(1) | 3(4) | 1(1) | 3(1) |
| | 金額 | 117,822 (86,330) | 1,659 (798) | 10,798 (1,397) | 31,397 (22,713) | 40,752 (37,963) | 919 (202) | 181 (6,768) | 16,116 (16,499) |
| 1986 | 件數 | 50(18) | 14(3) | 1(2) | 26(7) | 2(2) | 3(1) | (2) | 4(2) |
| | 金額 | 171,999 (14,846) | 7,153 (5,473) | 76,052 (3,336) | 79,265 (3,100) | 2,395 (75) | 5,580 (130) | 38 (773) | 1,576 (1,952) |
| 1987 | 件數 | 91(32) | 16(12) | 1(2) | 43(10) | 15(3) | 10(2) | 2(1) | 4(2) |
| | 金額 | 397,235 (64,520) | 131,075 (1,612) | 71,372 (2,537) | 177,172 (9,337) | 4,496 (49,443) | 6,844 (155) | 622 (445) | 5,654 (991) |
| 1988.1~9 | 件數 | 113(26) | 47(1) | 1(1) | 32(9) | 8(2) | 10(2) | 3(1) | 12(1) |
| | 金額 | 150,481 (8,268) | 32,114 (4,145) | 32,154 (145) | 67,291 (3,043) | 5,790 (193) | 9,016 (137) | 1,160 (255) | 2,956 (350) |
| 10 | 件數 | 15(2) | 2(−) | −(−) | 9(1) | 2(1) | 2(−) | −(−) | −(−) |
| | 金額 | 13,556 (898) | 2,143 (−) | −(−) | 7,042 (668) | 1,092 (30) | 3,229 (−) | −(−) | 50 (−) |
| 累計 | 件數 | 873(239) | 257(65) | 54(20) | 321(83) | 68(18) | 90(28) | 39(17) | 44(8) |
| | 金額 | 1,359,638 (238,711) | 319,364 (39,653) | 229,914 (15,002) | 515,855 (48,158) | 116,527 (93,526) | 38,430 (3,172) | 30,351 (17,865) | 109,197 (21,335) |
| 殘存投資 | 件數 | 634 | 192 | 34 | 238 | 50 | 62 | 22 | 36 |
| | 金額 | 1,120,927 | 279,711 | 214,912 | 467,697 | 23,001 | 35,258 | 12,486 | 87,862 |
| | 構成比 | 100.0 | 25.0 | 19.2 | 41.7 | 2.1 | 3.1 | 1.1 | 7.8 |

註 : 件數는 현지法人 單位基準으로서 新設 또는 撤收 및 包含。

()안은 清算, 賃貸金回收, 減資 등에 의한 減少分입。

資料 : 財務部 國際金融局 海外投資課。

전체의 72.2%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도 북미를 중심으로 유럽, 동남아, 중남미지역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 북미, 동남아 그리고 중동지역의 투자가 전체의 86.1%를 차지하고 있다.

두번째 특징은 아직 海外投資進出이 初期段階에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1986년 해외투자의 대 GNP 비중이 5.2%인 반면 한국의 경우 1988년 9월 현재에도 1%에 채 못미치고 있다.

세째로 投資規模의 零細性이다. 최근 전통적인 투자규모의 영세성에서 탈피, 대형 자원개발투자 및 대규모 제조업분야투자에 힘입어 평균 해외투자 규모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87년 말 현재 534건 해외투자중 50만 달러 미만의 투자가 377건으로 70.6%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투자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째로 中小企業投資의 不振을 들 수 있으며, 다섯째로 海外進出方式의 偏狹性이다. 해외투자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단독투자의 선호경향이 무척 강해 1987년 말 현재 단독투자에 의한 해외투자가 358건으로 전체의 67%를 점하고 있다. 또한 진출수단에 있어서도 현지생산법인의 설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합병 및 매수형태 등 다각적인 진출수단의 이용이 미흡하다.

(3) 海外投資環境의 變化분석

해외투자환경의 변화를 대내적 여건변화와 대외적 여건변화로 나누어 살펴 보자.

먼저 對內的 與件變化를 살펴 보면, 첫째로 黑字基調 내지 長期的 國際收支均衡達成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국제수지적자하에서 해외진출이나 자본조달의 어려움이 따랐으나 최근 국제수지 흑자의 누적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여력이 생기게 되었다. 한편 해외투자확대는 통화관리의 측면에서 해외부문에 의한 통화증발요인을 줄이는 동시에 외환의 과다보유에 따른 통상마찰증대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둘째로 先進國의 保護貿易強化이다. 미국 및 EC 등에 대한 수입규제의 강화에 대응하여 제조업부문의 현지투자와 제3국 우회거점 확보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세째로 企業의 國際化進展이다. 원화절상,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국내임

금상승 등 기업의 수출환경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경영의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투자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네째로 國際的인 產業再編成現象이다. 선진국간 신기술 개발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NICs의 부상과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비교우위구조의 변화와 국제적인 산업재편성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비교우위상실 산업군내의 기업은 기존산업분야의 경쟁력유지를 위한 개도국에 해외투자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다섯째로 對共產圈(中國 및 東歐圈) 經濟協力의 必要性增大이다. 북방의 교차원에서의 정부의 정책적 투자지원과 기업차원에서 미래의 잠재적 시장에 대한 진출거점확보로서의 시장개척형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對外的 與件變化를 살펴 보면, 첫째 동남아, 중남미 개도국이 경제개발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자국화 및 국유화경향은 상대적으로 퇴색하고 있으며 투자입증제한, 지분제한 등 投資規制를 緩和하고, 조세 및 관세감면 조치등 투자우대를 강화, 投資與件을 改善하고 있다.

둘째로 개도국의 외채누적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외자도입보다 外國投資를 選好하고 있다.

세째로 미국 등 선진국도 경기침체 및 높은 실업율에 따라 일본, 한국 등 무역흑자국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네째로 東西間 政治的 緊張緩和에 따라 우리의 북방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및 동구권과의 교역 및 직접투자가 증대되리라 본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는 우리의 해외직접 투자를 더욱 추진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V. 한국의 대 개도국 경제협력 증진방안

1.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증진방안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방향은 제3세계간의 경제협력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현 여건을 감안하여 이들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부문에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국제수지의 흑자전환, 경제의 개방화 가속, 선진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업의 국제화 진전, 대공산권 경제협력의 필요성 증대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는 대 개도국 경제협력에 대한 우리의 여력증대와 그 필요성을 새삼 인식케 한다.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국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 신축적인 경제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정부개발원조는 0.1% 수준을 훨씬 하회한다 그 중에서 국제기구 출자, 분담 등 다자간 협력이 대중을 이루고 무상자금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二國間 유상자금 협력은 1988년 말까지 전무한 형편이다.

앞으로 우리의 경제력 향상 및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정부개발원조의 규모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개발원조의 대 GNP 비율을 선진국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겠으나 현재 우리의 경제력과 국제수지 성장을 반영 향후 수년간은 일단 GNP 대비 0.2%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기술협력과 차관을 통한 이국간자금협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기술협력이 정부개발원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평균 20% 수준인데 우리의 경우 이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협력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나름대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분야를 찾아야 할 것이다. 산업화과정에서 후발개도국 보다 앞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산업화과정 계획수립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협력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들 개도국들도 앞으로 산업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 온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최근 산업화과정을 겪은 우리로부터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연구기관안에 개도국 담당기관을 부설하여 개도국들의 정부차원경제개발수립에 적극 참여,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이들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돋고, 또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기술훈련, 전문가 파견 등은 정부에서 독립적인 기관을 지정하여 총

괄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기관은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건설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현단계에서 산업기술훈련의 경우는 기업의 훈련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가 앞으로 진출 가능한 분야에 대한 인력개발에 치중토록 해야 한다. 기술훈련소를 현재에 세우고 전문가를 파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문가 파견은 이해가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전문가 파견 등에 따르는 기업부담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으로 상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병역의 혜택, 정부의 학비부담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이들을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한 독립적 기술협력기관을 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타입 기술협력까지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프로젝트타입 기술협력은 우리 경제가 이들 국가에 진출 가능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국간 유상자금 협력은 대외 경제협력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외경제협력의 운영방향은 먼저 중점지원대상국을 선정한 뒤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차관신청은 접수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정보수집을 하여야 한다. 둘째로 지원대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 세째로, 국제개발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용자체제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재 대외경협기금은 초기단계에 있어 기금재원 및 차관업무경험이 부족하다. 이 경우 IBRD, ADB 등과의 협조용자를 실시할 경우 보다 양질의 사업을 광범위하게 발굴할 수 있으며, 경협기금 단독으로 추진하기 힘든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응자가 가능하다. 특히 대공산권 경제협력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네째로, 경협기금을 통한 협력과 민간의 직접투자를 연계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경협기금의 차관조건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불리한 바, 지원조건의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협기금 지원조건의 점진적인 개선은 유망프

로젝트에 대한 지원기회를 증대시키고 개도국에 대한 경협효과를 증진시킨다.

2. 대 개도국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앞으로 국제수지의 흑자기반 내지 장기균형이 달성되고, 경제가 고도성장단계에서 안정성장단계로 이행하게 되면 해외투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다양화되리라 본다.

과거에는 국제수지의 어려움 때문에 해외투자를 장려사업과 금지산업으로 나누었고 장려대상사업은 주로 자원확보를 위한 산업과 제조업에 국한시켰다. 그러나 국제수지의 어려움이 없는 상황 아래서 장려대상산업에 대한 선정은 무의미하며, 해외직접투자의 업종선별은 기업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투자지원을 할 경우에도 업종별 차별은 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 특히 제조업과 비제조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벼려야 한다. 다만, 투자시 국제적 산업재편성과 국내산업정책과의 연계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對 개도국 직접투자의 진출방향은 내수확보에 중점을 둔 분야, 자원개발도입을 위한 분야, 그리고 우리가 비교우위를 잃어가는 자원집약적이거나 노동집약적인 분야 등 중요한 세 분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내수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고 진출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그 지역의 구미에 맞게 지방화(Localize)하여야 하며 이때의 진출방법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분야에서는 경제규모에 따르는 제약과 노동집약적인 기술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에 대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확립은 전진한 산업발전에 전제조건이 되므로 개도국들도 바라고 있는 바이다.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가 높으므로 합작투자의 형태를 취하고 우리의 비중을 50% 이하로 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자원확보를 위한 투자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국의 규제강화를 예상하여 반제품을 생산하여 한국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비교우위를 잃거나, 우리의 대선진국수출이 여러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노동집약적이거나 자원집약적인 수출 산업에 대해서는 自由貿易地帶 (free trade zone)를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수교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정부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기업의 독자적인 결정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미수교국의 경우, 현지시장개척 목적 뿐 아니라 해외공장설립에 수반되는 설비 및 부품수출의 수출증대효과가 중요한 투자동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미수교국 직접투자의 경우, 높은 컨트리리스크, 투자국에 대한 정보미비, 환율문제, 이들 국가의 정책의 일관성 결여, 낮은 노동생산성 등이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 기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협행 해외투자허가 및 사후관리제도 등 제도적 개선, 해외투자지원제도의 개선·보완, 그리고 해외투자 정보지원체계의 확립이 요청된다.

현재 해외투자의 심사, 승인, 사후관리 등 일련의 관리규정은 의회의 유출입기준으로 되어 있어 해외투자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면이 있다 앞으로는 갖은 제도개선을 지양하고 종합적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해외투자의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해외투자지원제도는 크게 금융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 그리고 보험지원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金融支援制度로는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 대출이 가장 일반적인 자금지원제도이다. 앞으로 대 개도국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원자금규모를 대폭 늘리고 금리는 국제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세제지원제도는 비교적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런데 현재 배당 소득세 면제는 자원개발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대개도국 투자에 대해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중 과세방지 협정의 체결국 수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개도국과 동구권에 대한 직접투자증가에 대비 이들 국가들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토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들 국가들에 실무교섭단 등을 파견하여 협정의 조기체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에의 참여를 통한 투자위험의 극소화도 도모해야 한다.

해외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의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보지원체제의 확립이 요청된다.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은 투자대상국의 정치, 사회동향,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본정책 및 법규, 외환관리제도, 세계 및 금융제도, 사회간접자본현황, 자유무역지대 등 운용현황,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지원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대상국에 대한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수인력을 현지에 유학케 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해외투자 관련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외투자지원, 특수지역진출, 해외투자간의 과당경쟁 방지, 해외투자정보의 수집배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參 考 文 獻

〈定期刊行物 및 論文〉

財務部, 財政金融統計, 各號.

全國經濟人聯合會, 全經聯, 各號.

韓國產業銀行, 海外投資促進을 為한 金融의 役割, 調查月報 1987.11.

韓國輸出入銀行, 輸銀調查月報, 各號.

_____, 海外投資情報, 各號.

_____, 輸出保險, 各號.

韓國銀行, 週刊內外經濟, 各號.

〈單行本〉

高正植, 中共의 對外開放과 貿易管理體制改革, 1988.7.

金仁俊, 國際經濟學, 茶山出版社, 1985.8.

金重雄 外, 金融國際化의 當面課題와 政策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84.9.

產業研究院, 共產圈 國別便覽—中國, 1988.

_____, 東南亞 國別便覽—인도네시아, 1988.

_____, 東南亞 國別便覽—말레이지아, 1988.

_____, 東南亞 國別便覽—타일랜드, 1988.

_____, 大平양시대와 韓國, 1989.

孫炳海, 經濟統合論, 法文社, 1988.3.

孫尚翼, 大洋洲 進出擴大方案, 產業研究院, 1987.11.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韓國의 해외직접투자 방향 및 지원방안, 1988.12.

慎鏞大 外, 우리 나라 海外投資의 活性化方案, 產業研究院, 1986.

王載烈, 美國의 洲別 企業進出環境 比較分析, 產業研究院, 1987.9.

- 外務部, 韓國의 對아세안 經濟外交構想, 1985. 4.
- 李熙斗, 日本의 海外直接投資와 企業經營戰略, 產業研究院, 1986. 3.
- 財務部, 海外投資成功事例 및 現況, 1986. 6.
- _____, 韓國의 海外投資, 1988. 5.
- _____, 海外投資 活性化 支援方案, 1988. 7.
- 韓國貿易協會, 韓國企業의 對美投資와 美國의 投資環境, 1987. 12.
- _____, 海外投資促進法 制定에 關한 檢討, 1987. 7.
- 韓國輸出入銀行, 中小企業의 海外投資, 1985. 5.
- _____, 日本의 海外投資政策 推移, 1987. 3.
- _____, 海外投資 活性化 方案, 1987. 5.
- _____, 國際化時代의 海外投資, 1988. 2.
- 韓國銀行 外換管理部, 投資現況, 1987. 12.
- 關國未夫, 環太平洋圏と日本の直接投資, 1982. 8.
- 大泉光一, 國際合併企業, 1980. 6.
- 藤森英男, 發展途上國の現地化政策, 1988. 5.
- 上野明, 新海外投資立國論, 1980. 4.
- 日本貿易振興會, 世界と日本の海外直接投資, 1988. 1.
- 日本輸出入銀行, 海外直接投資に關する論文集, 1986. 3.
- 日本通商產業省, 通商白書投資編, 1988. 6.
- _____, 經濟協力の現状と問題點, 1987.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1987.
- Association for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Japan, A Guide to Japan's Aid, 1987.